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4호 【루계 제25563호】 주체106(2017)년 2월 23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공훈국가합창단창립 70돐 기념공연 성대히 진행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사회주의승리의 진군가높이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필승불패성을 만천하에 과시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선군혁명의 힘있는 나팔수인 공훈국가합창단 창립 70돐 기념공연이 22일 인민극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태여나 우리 혁명의 제1세대 제1련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주의조선을 대표하는 국보적인 예술단체로 장성강화된 공훈국가합창단의 창립 70돐을 맞으며 뜻깊은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며 혁명군가의 무한대한 위력으로 존엄높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인민군대안의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창작가, 기자, 편집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공훈국가합창단은 태양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열린 경사로운 2월에 창립 70돐을 맞이한 긍지를 안고 뜻깊은 공연무대에 당과 수령에 대한 송가들과 조국찬가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가들로 환희로운 음악세계를 펼치였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관현악과 남성합창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빨찌산노래련곡》, 녀성3중창과 남성합창 《정일봉의 봄맞이》,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조국찬가》,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관현악경주곡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영광만리에 천하를 뒤흔드는 선군혁명의 승전가를 힘차게 울리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다지고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폭발시켜온 혁명군대 예술단체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남성4중창 《그이의 한생》,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그리움의 흰눈송이》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가장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합창단을 최고사령부의 제일 가까이에 세워주시고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위력한 노래포성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결사수호전,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불러일으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장내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정으로 천만의 총대동지, 혁명전우들을 키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진군가를 선창하는 나라의 만아들예술단체, 세계일류급예술단으로서의 위력과 명성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는 출연자들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끓어넘치였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혁명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응축된 공연은 남성합창 《사회주의지키세》, 《우리의 행군길》로 절정을 이루었다.

관현악과 남성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로 끝난 공연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의 천만리를 억세게 걸어온것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천만군민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식의 관현악과 합창, 다양한 성악종목들의 배합으로 새로운 경지의 음악형상을 창조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솟구치는 격정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적문예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고 만리마시대의 정신이 맥동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창립 70돐을 맞이한 공훈국가합창단의 전체 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이 앞으로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의 선두에서 조선혁명의 핵심부대, 기관차, 오늘의 쟁쟁한 빨찌산나팔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 지휘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공훈국가합창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혁명군가의 우렁찬 뇌성으로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입니다. 김 정 은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필승불패성을 밝힌 강령적문헌

사회주의는 과학이고 그 승리도 과학이다. 이것은 일찌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천명하신 고귀한 철리이다.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그 우월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전면적으로 밝힌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자구구 학습하며 뼈속깊이 새겨야 할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연성과 그 실현방도가 원리적으로 밝혀져있다.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며 사회주의는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고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성원들의 집단적협력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으며 자주적요구도 집단주의를 통해서만 실현할수 있다. 사적소유와 그에 의하여 산생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는 불피코 사회를 적대되는 계급으로 분렬시키고 계급적대립과 사회적불평등을 가져오며 인민대중에 대한 소수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동반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의 자주적본성,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해주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자신의 위업으로 되며 인민대중이 존재하는 한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면 그것을 담당하여 수행할수 있는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야 하며 옳은 투쟁방법이 마련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객관적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높은 사상의식으로 무장되고 하나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간개조사업, 사상개조사업이 사회주의의 물질경제적조건을 마련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서며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워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객관적인 물질경제적조건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경제건설에만 매달리면서 인민대중의 사상개조사업을 부차시하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소홀히 하면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옳게 할수 없으며 경제건설자체에서도 침체를 면할수 없게 된다는것은 지난 세기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의 과학성, 진리성은 우리 혁명실천에서 뚜렷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언제나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결속시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깃을 빛나게 개척하여올수 있었다. 실천적경험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가장 과학적이며 생활력있는 사회주의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는 또한 사람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과학성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사람에 대한 관점과 립장에 관한 문제는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어떤 관점과 립장에서 대하며 어떻게 리해하는가 하는데서 기초적인 문제이다. 사람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였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인것으로 하여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된다. 사람은 세계의 유일한 주인이며 유일한 개조자이다. 세계에는 사람보다 더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가 없다.

사람위주의 사회주의는 사람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서 출발하여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며 모든 문제를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풀어나가는 가장 과학적인 사회주의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사람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보장하며 사람의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빨리 높이고 그것을 적극 발양시킴으로써 세계의 주인,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여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의 과학성이 있고 불패의 위력이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생명의 본질과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명하였다.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도 귀중하지만 보다 더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다. 참다운 인간생활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끝없이 빛내여나가게 하며 그들의 육체적생명의 요구를 원만히 보장하는 진정한 사람위주의 사회주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는 다음으로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필승불패성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은 그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에서 나타난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고있기에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로 된다.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다. 사회의 모든것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며 인민대중은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다. 개별적사람들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없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것이 창조되며 력사가 전진하고 혁명이 추동된다.

인민대중은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인것만큼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주인으로서의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 이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대중의 자주적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인민대중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동지적단결과 협조,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가장 훌륭히 구현하며 정치도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전환시킨다고 가르치시였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는 인민대중을 제일로 여기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정치방식이다. 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잇는 근본담보도,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비결도 다름아닌 인덕정치에 있다.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며 인민을 위하여 떨사복무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당을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오려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이땅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려는 위대한 당의 인민사랑의 세계에서 천만군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윤 철 희

우리 식 사회주의의 강력한 힘

일 심 단 결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제일국력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초석이다.

정치사상적힘과 군사력, 경제력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국력의 기본요소이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치사상적힘, 일심단결이다. 현대적인 군사기술수단과 방대한 경제적잠재력도 일심단결과 결합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주는 강력한 무기로, 후손만대의 행복을 꽃피우는 번영의 밑천으로 될수 있다. 수령, 당, 군대, 인민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사회주의의 제일재보이며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무기이다.

일심단결, 바로 여기에 그 누구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다.

막 강 한 군 사 력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막강한 군사력은 우리 식 사회주의승리의 위력한 보검이다. 지난해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9월에 진행된 핵탄두폭발시험의 장쾌한 뢰성은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떨친 자랑찬 승전포성이였으며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면상을 후려갈긴 무서운 불벼락, 통쾌한 대승리였다. 올해에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것은 우리 조국의 강대한 힘을 더해주고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백배해주고있다.

정의의 혁마치로 폭제의 력을 무지비하게 내리쳐 부정의의 꽃이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하려는것이 사회주의조선의 확고한 결심이다.

자 강 력

자강력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게 하는 위대한 동력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자강력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여왔다. 우리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식의 투쟁방식과 창조방식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다. 지금 우리가 제국주의의 악랄한 침략책동과 끈질긴 제재와 봉쇄속에서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고있는것도 우리에게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자강력의 전통이 있기때문이다.

오늘 주체조선의 국력은 더욱더 강해지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자강력에 사회주의의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으며 미래가 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언해설

《주체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참된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이 명언에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길에 인민의 모든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이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철저히 구현된 가장 과학적이며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인민들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를 온 세상이 우러르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

세상에는 우리 인민처럼 망국노의 설음을 뼈저리게 체험한 인민은 없을것이다.

해방전 우리 인민은 간악한 일제의 중세기적억압과 식민지적압제밑에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다. 무고한 인민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죽어서 묻힐 곳조차 없었으며 온 강토가 하나의 큰 감옥이였다. 말과 글, 성과 이름마저 빼앗기고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심으로써 비로소 존엄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을 보여주는 노래 《사회주의 지키세》에도 있듯이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의 고난의 길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이였다. 그 길에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불은기를 지켜 쓰러지면서도 기대걸을 떠나지 않았고 그 어떤 풍과속에서도 사회주의신념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 주체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이는 길에 인간의 존엄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도 미래도 있다는것이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체득한 철리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우리 인민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행복한 생활과 앞날의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는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로 여기고있다.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최우선시되고있는 주체의 사회주의제도에서 보람찬 삶의 희열을 한껏 느끼고있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가는 곳마다 일떠선 사랑의 육아원, 애육원들과 마식령스키장,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한 인민의 봉사기지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혜택을 보여주는 축도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과 세계도처를 휩쓸고있는 자연의 재앙으로 하여 많은 나라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있다. 이와는 반면에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는 뜻밖에 들이닥친 자연의 대재난을 온 나라가 떨쳐일어나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가셔내고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 사회주의보금자리를 마련하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짐으로써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다시금 뚜렷이 과시되였다. 이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긍지높은 현실이며 북받은 대지에 흘러넘치는 사회주의향기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언에 담겨진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유 철

필승의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

◇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기념비적창조물이 세계를 굽어보며 솟아오르고있다.

승리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며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현대적인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각양각색의 희한한 다층건물들…

착공의 첫삽을 박은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혁명거리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선것을 보고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신화적인 건설속도를 창조할수 있는가.

결코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신념이였다. 혁명거리건설은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책동으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전,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다.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끊임없이 비약해나가는 굴함없는 공격기상과 담대한 배짱,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은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강의한 의지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혁명거리야말로 사회주의신념이 일떠세운 고귀한 결정체, 승리의 창조물이다.

◇ 사회주의승리는 혁명적신념의 승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입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는 고난의 행군시기 나에게 정든 고장이라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는 자강도에 가서 로동계급을 만나보고 힘을 얻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고난과 시련은 신념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다. 숨죽은 공장들과 불빛꺼진 거리와 마을들, 겹쌓이는 자연재해, 그야말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최악의 역경이였다. 하지만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굶어쓰러지면서도 기대걸을 떠나지 않았으며 쌀배낭이 아니라 거름짐을 지고 나르며 붉은기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바로 자강도인민들이였다. 우리 인민모두가 고난과 시련속에서 불사신처럼 일떠선 신념의 강자들이였다.

인간의 높이는 신념의 높이이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절대로 와해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이 지닌 불굴의 신념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찬란한 미래에 대한 락관에 기초하고있다. 바로 이런 신념의 토양에 억세게 뿌리내린고 그 신념을 자양분으로 하고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것이다.

◇ 사회주의교양은 전만군민의 심장속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억척같이 쏘아박는 사상의 정대, 마치와 같다.

사회주의는 인민의것이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지향이고 의지이기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날로 승승장구하고있는 주체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리념의 표본이며 필승의 상징이다. 필승의 신념, 필승의 의지, 필승의 대가 있는 혁명가들만이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수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한시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것이 신념교양이다.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장 과학적이고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세기를 이어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로작들을 자자구구 학습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고 그 승리도 과학이라는 신념을 뼈속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양을 원리적으로 참신하게 진행하고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사회주의락원일세》를 비롯한 노래를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며 신념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승리에 대한 억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이 땅우에 무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죠지타운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

데이비드 아써 그랜져각하

나는 가이아나협동공화국선포 47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2월 8일 평 양

가슴깊이 새겨가는 청년대학생들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 본사기자 촬영

인민군군인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청 소 년 교 양 에 서 나 서 는 중 요 한 문 제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현시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교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의 심장속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깊이 심어주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나라와 민족의 흥망,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해나가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들속에서 사회주의교양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주의위업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서자란 새 세대들일지라도 그들을 옳게 교양하지 않으면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날수 없고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우리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운명이 새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러면 새 세대들에 대한 사회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우선 청소년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계급의식과 집단주의정신은 사회주의수호정신의 핵으로, 근본바탕으로 된다. 계급적각성이 높고 집단주의정신이 강해야 청소년들이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반제계급교양에서는 적아를 똑똑히 가려보고 어떤 환경에서도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갈수 있는 투철한 계급의식과 예리한 계급적관점으로 무장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일제와 미제가 지난날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오늘도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이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를 허물어버리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청소년들이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깊이 새기고 적들과는 대를 이어가면서 끝까지 싸워 결판을 내겠다는 굳은 사상적각오와 강의한 의지를 지니게 된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집단주의의 우월성이며 그 위력의 원천도 집단주의에 있다. 청소년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심도있게 꾸준히 벌리는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는 집단주의적생활기풍이 어려서부터 체질화되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청소년들속에서 발휘되는 집단주의적소행을 널리 소개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잘 해나가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실속있게 벌리는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립장과 정신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폐부로 절감하고 신념으로 간직할 때만이 확고부동한것으로 될수 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주체의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하자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현실과 결부시켜 잘 하는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사람의 가장 값높고 행복한 생활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한마음한뜻이 되여 투쟁해나가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 사회주의가 생명보다 더 귀중하기에 우리 인민이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허리띠를 조이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냈다는데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자본주의사회의 반인민성에 대하여 잘 알려주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청소년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똑똑히 인식시키는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자기들의 희망도 포부도, 오늘의 행복한 생활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길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는것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한편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노리고 썩어빠진 자본주의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있다. 지난날에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다.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빠르므로 주위환경의 좋은 영향뿐아니라 나쁜 영향도 쉽게 받게 된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반동적사상문화와 부르죠아생활양식을 퍼뜨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의 교활성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본주의사상문화와 생활풍조가 사랑받던 독약이며 그것을 배격하기 위한 투쟁이 제국주의와의 총포성없는 전쟁이라는것을 잘 알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생활을 검박하게 하고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품성을 지니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해나갈 때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해나갈수 있다.

고 성 심

공훈국가합창단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주체혁명위업의 성스러운 행로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헌신의 자욱을 뚜렷이 남기며 조선의 국보, 민족의 자랑, 선군혁명의 제1나팔수로 명성떨쳐온 공훈국가합창단이 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22일 진행되였다.

보고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공훈국가합창단 지휘성원, 창작가, 예술인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김정은장군찬가》 합창으로 시작되였다.

보고회에서는 공훈국가합창단 창작가, 예술인들과 지휘성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황병서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따라 걸어온 자랑스러운 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당과 함께 걸어갈 휘황한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창립 일흔돐을 맞이하고있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과 지휘성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경례를 보내였다.

축하문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태여나고 자라난 우리 혁명의 산아, 위풍당당하고 세련된 혁명군대 예술단체이며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은 강력한 노래포성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는 홍진군대오에 활력을 더해주는 오늘의 백두산나팔수, 사회주의조선을 대표하는 국보적인 합창단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주체적문예활동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6(1947)년 2월 22일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의 일환으로 공훈국가합창단의 전신인 군대전문예술단체를 조직하여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상과 전투적랑만이 넘치는 혁명적인 예술활동으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전기간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지도로 공훈국가합창단을 독자적인 정예화된 예술단체,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으며 합창단의 전투적인 혁명군가로 천만군민을 사회주의수호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선군혁명총진군에로 억척같이 일떠세우시였다.

사생결단의 간고한 선군장정의 길에 언제나 합창단을 직접 데리고 다니시며 백수십차의 공연을 지도하여주시고 천수백차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특출한 령도와 거듭되는 높은 평가, 뜨거운 온정에 의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은 우리 혁명의 제1제대 제1련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군혁명의 나팔수, 우리 당 음악정치의 기둥, 비상한 예술적감화력을 지닌 본보기예술단체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손때묻혀 키워주신 공훈국가합창단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가를 선창하는 나라의 맏아들예술단체, 조선혁명의 기관차, 국보중의 제일 귀중한 국보로 내세우고 세계일류급예술단으로서의 위력과 명성을 더욱 높이 떨치도록 하였다.

축하문은 해방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첫 노래포성을 터친 공훈국가합창단이 지난 70년동안 당과 수령이 안겨준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생명선으로 간직하고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불을 다는 우렁찬 혁명군가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는데 공헌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방을 종횡무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적인 폭풍강행군을 걸음걸음 따르면서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과 지휘성원들은 선군령장의 천출위인상에 온넋과 심장으로 매혹되여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수령흠모, 수령옹위의 명작, 걸작품들을 창작공연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다지고 조선혁명의 강대성과 필승불패성을 만천하에 과시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적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김일성상계관작품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와 김정일상계관작품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비롯한 시대의 기념비적작품들을 훌륭히 창조형상하고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조선의 힘》, 《근위부대 자랑가》 등 남성합창작품들을 손색없이 형상하여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폭발시키고 주체음악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축하문은 당이 가리키는 혁명전구들에서 선군혁명의 승전가를 울려온 공훈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이 몇천만의 식량과 력록탄에도 비길수 없는 혁명군가의 무한대한 위력으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존엄높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위용을 힘있게 떨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기적의 2016년에 전개된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과 지휘성원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합동공연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합동축하공연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관현악과 남성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와 《빨찌산노래련곡》,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신념》과 합창 《전진하는 사회주의》, 음악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관현악경주곡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와 같은 성과작들을 창조형상하여 전인민적인 자력자강의 창조대전,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세계최상급의 예술형상수준, 세계최고의 음악예술을 창조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일념을 안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나날에 공훈국가합창단이 명실공히 최고사령관의 믿음직한 나팔수로 자라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천하를 뒤흔드는 혁명군가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백절불굴의 투지와 신심을 안겨주고 제국주의원쑤들에게는 무서운 패배와 멸망을 선고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은 이 세상 금은보화를 다 주고도 살수 없는 조선로동당의 위력한 사상교양수단이고 우리 국가의 자랑이며 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 인재들이라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과 지휘성원들이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과 혁명적군인정신을 지니고 선군혁명의 제1나팔수답게 훌륭한 창작창조성과로 당과 수령을 결사보위하며 우리 당 음악정치사에 혁혁한 자욱을 아로새겨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장룡식 공훈국가합창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의 보고에 이어 부단장 현은철, 파장들인 설태성, 리창건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훈국가합창단창립 70돐을 뜻깊게 기념하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도록 하시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공훈국가합창단의 70년 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손길아래 태여나 혁명군대의 정규적예술단체로, 최고사령부의 나팔수로 강화발전되여온 영광의 나날이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항일의 문예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참다운 혁명군대의 예술부대를 창립하여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힘있는 예술활동으로 군대와 인민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우리 당사상전선의 척후대,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합창단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모든 공연을 우리의것을 가지고 하도록 가르쳐주시였으며 예술인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주체적문학예술의 거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전기간 공훈국가합창단을 선군혁명의 제1나팔수로 내세워주시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훈국가합창단을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는 사상적순결체, 선군조선의 국력과 위상을 떨치는 최정예예술집단, 국가적인 합창단으로 더욱 발전시키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사색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사랑속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이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자랑이며 국보인 공훈국가합창단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태여난 우리 혁명의 산아, 당과 숨결을 함께 하며 시련의 언덕을 헤쳐온 혁명의 귀중한 유산이라고 하시면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속에 합창단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며 천만군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 만리마시대의 진군가들을 훌륭히 형상하여 내놓을수 있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공훈국가합창단의 자랑스러운 전투적행로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주체적음악예술의 거장이시며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뜨거운 믿음, 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오늘 공훈국가합창단앞에는 혁명군가의 우렁찬 포성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 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명작창작으로 수령을 옹위하고 혁명을 보위하며 당의 척후대, 나팔수로 복무해온 전세대 문예전사들의 투쟁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당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사상전선의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합창단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과 지휘성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명작록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음악작품들을 당에서 바라는 본보기작품으로, 세계를 놀래우는 시대의 기념비적명작, 력작으로 창작형상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조선혁명의 핵심부대답게 당에서 정해준 예술창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만리마시대의 기상이 나래치는 노래폭탄, 사상의 미싸일들을 련이어 만들어내며 격동적인 공연활동으로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문예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창작과 창조, 안삼불훈련을 제인 규률속에서 진행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로서의 품격과 자질, 기량을 완벽하게 갖추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훈국가합창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과 지휘성원들이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만을 걸어갈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의 선두에서 혁명군가의 뇌성을 힘차게 울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결의편지가 채택되였다.

보고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동지가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를 만났다

【평양 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단장으로 이란이슬람공화국을 공식방문하고 이 나라에서 진행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지지하는 제6차 국제회의에 참가하고있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동지가 21일 쎄에드 알리 카메네이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쎄에드 알리 카메네이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최태복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인민의 김정은령도자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담화는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한편 이날 최태복동지는 팔레스티나국가, 니제르공화국, 말레이시아, 마다가스까르공화국의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을 각각 만났다.

네형제공장, 기업소들사이와 농기계,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사이의

2016년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모임 진행

네형제공장, 기업소들사이와 농기계,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사이의 2016년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모임이 22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와 고인호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직맹, 경쟁단위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주영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민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2016년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할 일념밑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공장, 대안친선유리공장과 농기계,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지난해에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대진군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활발히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쟁단위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설비,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생산자대중을 총돌격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힘있게 전개하며 강원도정신을 따라배워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을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올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쟁순위가 발표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표창장과 사회주의증산경쟁순회우승기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모범)에 수여되였다.

모임에서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지배인 최승룡, 해주련결농기계공장 지배인 우창식,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 지배인 김성혁, 대안친선유리공장 직맹위원장 김명기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로동계급을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불러주시며 주체혁명위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2017년 사회주의증산경쟁요강이 발표되였다.

많은 온실남새와 버섯을 생산

개성시에서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에 힘을 넣어 주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버섯과 남새생산을 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함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시의 일군들은 현장들에 나가 그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나 되는 남새, 버섯작황을 마련하였다.

남새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는 개성남새온실에서 년초부터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자체의 힘으로 많은 유기질비료를 마련해놓고 남새들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공정별비배관리를 잘하여 경사스러운 2월에 들어와서만도 현재까지 많은 량의 시금치와 쑥갓, 배추를 비롯한 온실남새를 상업망들에 보내주었다.

판문점, 정화협동농장의 온실작업반, 분조들에서는 우량품종의 종자들을 심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불리한 겨울철조건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남새생산을 1.3배로 끌어올리였다.

온실농사에서 앞장서고있는 해선협동농장에서는 겨울철남새생산에서 기본인 온도보장에 주의를 돌리면서 빛관리와 박막, 나래씌우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잘하여 푸르싱싱한 많은 량의 남새들을 키워냈다.

개성버섯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원료,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재배실들에 생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실하게 자래운 버섯들을 유치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보내주었다.

시안의 협동농장 버섯재배장들에서도 기후조건에 알맞는 버섯품종을 선택하고 종균배양과 파일, 태양열에 의한 온습도보장 등 재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면서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방문기

자강력으로 울려가는 만가동의 동음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을 찾아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기계와 농업생산시설들에 대한 보관과 관리를 잘하며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의 농촌기계화사업이 그 어느 단위보다 잘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속에 취재길에 올랐다.

봉화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의 자욱이 새겨져있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여러차례 현지지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곳, 영광의 이 땅을 지켜선 기계화초병들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의 앞장에 서있다는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리당위원장 김동일동무는 우리 기계화작업반원들은 농장의 보배들이라고,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섰는데 그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기계화작업반으로 가보면 더 잘 알게 될것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판리위원회로부터 조금 떨어진 나지막한 둔덕에 자리잡고있는 작업반으로 들어서는 우리의 눈에 제일먼저 안겨드는 뜻깊은 글발이 있었다.

정문우에 힘있는 필치로 새겨놓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였다.

길지 않은 이 구호속에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는 농촌기계화의 전초병이라는 남다른 긍지와 높은 책임감을 안고 자기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이곳 작업반원들의 미더운 모습을 그려볼수 있었다.

우리의 발걸음은 차고를 지나 농기계보관고앞으로 옮겨졌다.

십여칸으로 된 농기계보관고들마다에는 종합토양관리기계, 씨뿌리는기계, 모내는기계, 김매는기계를 비롯하여 수십종의 농기계들이 꽉 들어차있었는데 이제라도 포전으로 나가 작업을 할수 있게 새것처럼 정비되여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흐뭇하게 해주었다.

더우기 모판만드는기계, 논두렁짓는기계, 소형벼탈곡기와 소형강냉이탈곡기를 비롯한 10여종의 농기계들은 이곳 작업반원들이 자체로 창안제작하였는데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에 출품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어떻게 되여 이런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마음먹은대로 척척 작업반원들의 투쟁기풍과 정신이 그대로 비껴있는듯싶어 우리는 한동안 생각깊이 바라보았다.

마당 한편에는 수백㎡의 번듯한 차고들이 있었는데 모두 비여있었다.

금시 포전으로 나가려던 참에 우리와 만난 작업반장 홍만길동무의 말에 의하면 지금 20여대의 뜨락또르들이 전부 작업반포전들에 나가 거름실어내기전투에서 만가동하고있다는것이였다.

창안제작할수 있었을가 하는 우리의 호기심은 그옆에 꾸려놓은 수리기지에서 풀리였다.

수리기지는 비록 크지 않았으나 여기서는 피스톤, 축침을 비롯한 뜨락또르와 농기계수리에 필요한 수십종의 부속품들을 생산하고있었다.

이 부속품들로 뜨락또르의 대수리도 작업반자체의 힘으로 하고있다고 한다.

그러니 뜨락또르들이 대수리를 하기 위해 수십리를 오가던 일이 없어져 절약되는 기름도 적은 량이 아니지만 그만큼 뜨락또르들의 가동률도 더 높아졌을것은 명백한 일이였다.

소문없이 많은 일을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품을 들여가며 튼튼한 토대를 갖추어놓으니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고, 작업반원들모두가 이 수리기지를 작업반의 믿음직한 병기창이라고 부른다는 작업반장의 말을 우리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정말 자력갱생의 기풍이 차넘치는 곳이였고 돌아볼수록 자랑도 많은 기계화작업반이였다.

봄철에 진행되군 하는 군적인 뜨락또르출동식에서 10여년이나 첫자리를 양보해본적이 없으며 모든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농기계운전공들이 자기가 맡은 기대에 완전히 정통하고 많은 작업반원들이 그 어떤 고장과 부속품생산이 제기되여도 막힘없이 해제끼는 고급기능공들로 떠받들리고있다는 이야기.

지금 작업반으로는 주변의 여러 단위들에서 륜전기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수리를 도움받기 위하여 찾아오고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감동속에 듣는 우리의 생각은 저도모르게 깊어만졌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업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 념원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루빨리 그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농기계전시장을 찾아주시고 우리 로동계급이 새로 만든 여러가지 농기계들도 크나큰 기쁨속에 보아주시며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거니.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온 나라의 협동농장들의 기계화초병들이 맡고있는 몫은 자못 크다.

그들모두가 이들처럼 자기 농장의 기계화사업은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투쟁한다면 종합적기계화실현의 그날은 더 빨리 다그쳐질것이 아닌가.

우리의 귀가에는 적재함마다 넘쳐날듯이 거름을 가득 싣고 달리는 뜨락또르들의 동음이 깊은 의미를 안고 크나큰 메아리가 되여 울려여왔다.

영광의 땅 봉화리의 포전들마다에서 만가동의 동음 더 높이 울려가며 언제나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갈 이곳 작업반원들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되여.

박 영 진

분조의 참된 주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거름실어내기전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어느날이였다.

이른아침 뜨락또르와 달구지들에 거름을 가득 싣고 포전으로 나간 문천시 판풍협동농장 제2작업반 1분조원들은 가슴이 뜨거워오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분조장 구영애동무가 지난밤에도 달구지로 거름을 실어낸것이였다.

자나깨나 분조농사를 책임졌다는 주인된 자각을 안고 아글타글 애쓰며 새벽이슬은 남먼저 맞고 밤잠은 남보다 적게 자면서 병사시절의 그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는 분조장.

무심히 볼수 없는 거름더미였다. 바로 그 거름더미에 분조원들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분조장의 말없는 호소가 슴배여있기때문이였다.

그날부터 분조원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거름실어내기실적은 두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

결과 분조는 농장적으로 제일먼저 수백㎥의 거름실어내기전투를 끝낼수 있었다.

하기에 농장원들은 언제나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분조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참된 주인인 분조장이 있어 올해농사는 문제없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처럼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자!

화차리용률을 높이는데 증송예비가 있다

개천철도국 수송지휘처 일군들의 사업에서

화차와 전인기보장, 이것은 철도운수부문 일군들이 물동수송계획수행을 놓고 첫 화제에 올리는 말이다.

허나 새해에 들어와 계획보다 10만여t의 화물을 증송한 개천철도국 일군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며 수송지휘처 일군들은 화차의 정적하중보장문제를 자주 입에 올리였다. 현존조건에서 화차의 리용률만 높여도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물동을 실어나를수 있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시사하는바가 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어느 철도국이나 화차와 전인기부족을 느끼고있다. 그렇다고 해결방도가 없는것은 아니며 찾을수록 증송예비가 나온다는것이 이곳 수송지휘처 일군들의 견해이다.

새해전투에 앞서 있은 일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높아진 첫달 화물수송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가 론의되였다.

여러가지 혁신적인 안들이 제기되였다. 일군들을 중요화물역, 기술역들에 내려보내여 현지에서 실태를 보다 정확히 장악지휘하는 사령지휘체계의 강화, 소운전비중을 높이며 기관차들이 한량의 화차라도 더 달고 달리도록 하는 문제…

이윽하여 전성력처장이 어느 한 철도역에서 목격한 사실을 놓고 화차의 정적하중을 잘 보장하면 화차의 리용률을 더욱 높일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철도역에서는 생산능력이 큰 종이공장으로 향한 화물렬차에 대한 운행중검사가 한창이였다. 차관마다에는 통나무들이 가득 실려있었다.

그런데 곧게 자라지 못한 8m짜리 통나무를 싣다보니 량옆에 2m씩 비여있었고 연필자루처럼 빽빽이 쌓여있지도 못하였다. 헐잖아 5㎥정도의 통나무가 정적하중보다 작게 실린것이 눈짐작으로 알리였다.

이 문제를 푸는데 적지 않은 증송예비가 있다고 포착한 처장동무는 큰 대책을 세우였다. 짐실기역과 짐임자들과의 련계밑에 8m의 통나무대신 5m짜리를 두줄로 쌓아 차관면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며 증송예비는 찾을수록 늘어난다는 그의 이야기는 협의회분위기를 고조시키며 계속되였다.

이렇게 하면 통나무가 구불구불한 경우에도 화차의 정적하중보장에 유리하고 짐실기작업이 헐해지며 렬차의 운행중 안전성도 높일수 있다. 한칸에 통나무를 백수십량 실어나른다고 볼 때 15량의 화차예비를 조성할수 있다. 리끌모아 큰 산이라고 이런 식으로 증송예비를 찾아내면 현존화차와 전인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많은 물동을 실어나를수 있지 않는가.

참가자들은 속구구를 해가며 연방 머리를 끄덕이였다. 지난시기 소홀히 여겨오던 화차의 리용률에 얼마나 큰 증송예비가 있는가를 다시금 자각하게 하는 계기였다.

이런 식으로 론점을 제기하고 일군들의 창조적지혜를 계발시킨 결과 협의회에서는 높아진 첫달 화물수송계획을 수행할수 있는 묘안들이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쏟아져나왔다. 짐임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같은 방향의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을 배합하여 싣고 짐을 부리우고 돌아오는 화차들의 리용률을 높이며 무개차와 유개차, 60t, 100t화차들을 용도별로 적중하게 리용하는 문제들이 특별히 강조되였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짜고 들었는가.

수송지휘는 기관차와 객화차부문, 짐임자들과의 긴밀한 련계가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보장될 때 화차의 리용률을 높여 성과를 바랄수 있다. 교대전과 교대후의 수송지휘의 공백도 없애고 화차의 정적하중을 잘 보장하여야 대교조격전장들에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를수 있다는것이 이곳 일군들이 찾은 중요한 방도였다.

때문에 수송지휘처의 일군들은 실적 하나만을 놓고 진행하던 경쟁총화를 보다 세분화하여 여러 항목을 더 첨부하였다.

특히 화차회귀일수를 줄이면서 차량수에 따르는 짐운반량을 기본으로 평가하며 자기 교대에 도착시키지 못하였지만 다음교대가 빨리 화물렬차를 목적지까지 짐을 실어나를수 있게 한 전수와 베차사령원들사이의 유기적인 결합문제 등을 반영하였다.

윤력윤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앞장에서 북돋아주며 경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조건보장을 따라세웠다.

화차의 리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중심에 놓고 그들속에서 나온 좋은 안들을 받아들이니 사령원들의 일본새가 크게 달라졌다.

최인섭동무의 교대에서는 화차의 기술상태를 깐깐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같은 방향의 짐을 합리적으로 무어 정적하중을 정확히 보장하였으며 해당 승무원들을 불리일으켜 더 많은 물동을 실어날랐다.

고정철동무의 교대에서는 운행중에 있는 화물렬차들의 움직임을 환히 꿰들고 짐을 부리우고 돌아오는 전용렬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수송지휘를 짜고들어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한마디로 수송지휘의 련속성과 매 요소들에서의 유기적인 결합이 원활하게 보장되여 화차의 리용률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화차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니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화차의 회귀일수는 줄어들었고 새해에 들어와 10만여t의 화물을 더 실어나를수 있었다.

두줄기 궤도우에 흘러가는 증송의 기적소리는 당정책을 보검으로 틀어쥔 이곳 당, 행정책임일군들의 진취적인 작전에 대중의 창조적열의가 안받침되여 이룩된것이다.

이들처럼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단위에서 화차의 리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잘 짜고들면 현조건에서도 긴장한 수송문제를 푸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대교조격전장들에 더 많은 물동을 실어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전성삼

제힘으로 일떠선 긍지와 자랑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부재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부재공장은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로서 자랑이 많은 공장, 배울것이 많은 공장이다.

그 자랑중의 자랑은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가 온 공장에 차넘치는것이다.

최근에만도 공장에서는 수입해오자면 요출기를 자체로 만들어 갱도영구화물크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기계공장도 아닌 공장에서 또 요출기를 만들어본 사람도, 설계를 해본 사람도 없는 공장에서 이런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성과의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요출기의 구입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출기는 수입해와야 하는것으로 여기고있었다.

하지만 지배인 리영동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여 요출기를 수입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력자강의 힘뿐이다.

이렇게 되여 요출기를 만들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들은 세멘트생산과 운영과정에 쌓은 경험에 토대하여 다른 나라의것보다 우월한 요출기설계를 단 며칠동안에 완성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요출기의 본체를 만들만 한 설비가 공장은 물론 주변의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도 없는것이였다.

애로와 난관은 컸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금속공장들과 과학연구기관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끝끝내 우리 식의 요출기를 제작해내고야말았다. 그 나날 이들이 지새운 밤은 그 얼마이며 걸은 길은 또 얼마였던가.

만난을 웃음으로 헤치며 공장의 더 좋은 래일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쟁그리 쏟아붓던 그밤들,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며 공장의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해 애국충정의 일념으로 걷고 또 걸은 그 나날들을 오늘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떳떳하게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다.

이런 창조자, 열정가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공장을 찾는 사람들속에서는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 선군시대영웅자를 배출한 공장이 역시 다르다는 찬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모든 생산공정에 콤퓨터에 의한 자동조종체계의 구축, 세멘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맞는가고 의심할 정도로 깨끗한 공장구내, 로력과 원료보장시간을 절약하며 쉬임없이 원료를 실어나르는 벨트콘베아 등 공장의 생산환경과 조건은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힘차게 전진하는 일터의 후더운 숨결을 가슴벅차도록 느끼게 한다.

그런가하면 칠색송어를 비롯한 여러종의 물고기와 칠갑상어들이 떼지어 노는 양어못들, 칠면조와 꿩 지어 100㎏은 실히 잘될 금이 보금자리를 틀동물사, 한겨울에 오이와 버섯을 비롯하여 갖가지 신선한 남새들이 푸르싱싱 자라고있는 태양열온실 등 공장의 물질적토대 또한 사람들의 감탄을 끊임없이 자아낸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우리 당과 한피줄을 잇고 사상도 뜻도 함께 하려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깨끗한 충정과 남다른 일본새가 안아온 소중한 열매들이여서 누구에게나 기쁨과 긍지, 사랑과 정을 더해주고 있다.

하기에 《우리 당이 바라는것, 공장에 필요한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수 있습니다.》라는 배심든든한 목소리가 공장의 누구에게서나 울려나오는것이다.

김국철

현지보도 비날론이 쏟아진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수평방사직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하며 중요화학공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기술공정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여기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불타는 그리움이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 수평방사직장 생산현장이다.

온 나라에 비날론대경사를 안아온 자랑을 오늘도 굳건히 이어가는 이곳 로동계급의 충정의 열도 인양 접체같은 혼합기들에서는 폴리비닐알콜용액이 뜨거운 증기를 내뿜으며 작업장구내를 한껏 달군다.

콸-콸- 생산용증기가 도관을 따라 흐르는 소리가 공격전에 나선 초음속비행기의 발동소리마냥 귀전을 스친다. 웅-웅- 각종 뽐프들의 동음은 전투마당에 나선 기계화군단의 기동소리마냥 가슴을 쾅쾅 두드린다.

콤퓨터조종실에서는 조종공 백은옥동무가 긴장한 모습으로 화면에 현시되는 방사현액공정의 각이한 온도와 압력, 류량값들을 주시하고있다.

1호용해기의 폴리비닐알콜 수위가 80%라는 값이 현시되자 처녀운전공은 민첩한 동작으로 뽐프를 가동시켜 2호용해기로 용액을 보낸다.

《원료투입으로부터 비날론섬유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태량들이 이렇게 콤퓨터에 현시되여 조종되고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한 책임기사 리병선동무가 조종대면부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다.

복잡하게 얽혀 진행되는 화학반응의 세계를 콤퓨터화면을 마주하고 능숙하게 처리해나가는 조작공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요구되는 비날론제품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내줄 일념안고 설비의 정상가동을 보장해나가는 기대공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절로 믿음이 가고 쉬임없이 울려나오는 설비들의 동음이 결코 무심히 들리지 않는다.

방사공정에 들어서니 수천개의 미세한 구멍이 뚫린 방사기들에서 폴리비닐알콜용액이 련속적으로 순환되는 류산나트리움용액속으로 방사되여 그 즉시에 하얀 색갈의 비날론섬유로 응고된다.

습열연신기와 로라들을 거쳐 마치도 바쯤당기기를 하듯 팽팽히 긴장되여 건조기로 들어가는 모습도 가관이지만 줄줄이 쏟아져나오는 비날론섬유들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직장은 뜻깊은 2월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심장마다에 조아박은 굳센 대화학공업기지 로동계급의 신념과 배짱을 한껏 느낄수 있다.

생산현장을 나서니 2월의 하늘에 함박눈이 송이송이 소리없이 내린다. 눈같이 하얀 우리의 주체비날론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투장들을 향해 달려간다.

심학철

영광의 일터, 높아가는 증산의 동음

희천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

얼마전 우리는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희천일용품생산협동조합을 찾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관리위원장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주체91(2002)년 7월말 찌는듯 한 삼복의 무더위에 조합에 찾아오시였던 어버이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을 따라섰다.

못 잊을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48년동안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였는데 그렇게 한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조합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발휘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조합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지수로부터 시작하여 자체로 만든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는 문제 등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신 그날의 현지말씀은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오늘도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깊이 새겨주고있다는 조합일군의 목소리는 격정에 잠겨있었다.

어버이장군님의 그날의 유훈을 뼈에 새긴 조합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기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박막압출기와 과비닐분쇄기를 비롯한 여러 설비를 제작하였으며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훨씬 높이였다.

그 나날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막아나설 때마다 조합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전진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당 제7차대회가 열린 지난해에는 설비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이나 가공하던 공작기계들로 능률높은 사출기를 자체로 제작하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이 되는 올해에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그날의 영광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비상한 자각과 의지를 안고 분발하여 지난 1월에는 가방밸끈절단설비와 가방그림찍기설비제작을 완성하고 인민경제계획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자력자강의 영웅신화를 창조할 일념안고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청진철도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제32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

제32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개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들이 참가한 축전에는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280여건의 과학연구성과들이 출품되였다.

이번 축전은 수학 및 물리, 요소 및 장치, 농업 및 생물공학, 의학 등 9개 분과로 나뉘여 과학기술성과발표회 및 전시회, 단위별전시경연, 새 기술교류형식으로 진행된다.

축전장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기쁨을 드린 《조선어교육지원체계》, 《정성합성가죽공장의 현대화실현》, 《메라코렘의 생산과 산림, 농업부문에서의 응용》과 우리의 자랑찬 국산화기술을 보여주는 《통시복사전방향어군탐지기》, 《김치종합분석기》, 《가정용적산류망게》, 《생물공학적방법으로 12종의 알부민을 함단백질약물개발》 등의 성과자료들이 전시되였다.

《메라대료의 광학적성질과 그 응용》, 《소립자와 우주론에 대한 연구》, 《위암때 인공위형성식위전적출술》을 비롯하여 기초첨단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수십건의 성과들도 나왔다.

22일에 있은 개막식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학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강원도정신으로 과학교육의 혁인 올해를 빛내이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2월25일상보링경기대회 진행

2월25일상보링경기대회가 21일과 22일 평양보링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평양보링관을 현지지도하신 기념일을 맞으며 열린 이번 경기대회에는 보링을 애호하는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남, 녀 개인, 복식, 단체(남자 3명, 녀자 1명)경기로 나뉘여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선수들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평시에 련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몸의 균형과 중심잡기에 의한 공내붙기, 자리깔선택 등 다양한 기술과 고상한 경기도덕풍습을 잘 보여주었다.

22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로씨야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무관 연회 마련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마레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알렉쎄이 바르뚜쏘브 대사관 무관이 22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강순남 인민무력성 부상,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서해열점수역에서 벌어지고있는 침략자들의 광란적인 군사적준동

조선서해열점수역에 또다시 일촉즉발의 군사적충돌위기가 조성되고있다.

22일 남조선괴뢰호전세력들은 서해 5개섬주변에서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을 막으며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인공어초》를 설치한다는 미명밑에 민간선박들을 우리측 수역에 련이어 침범시켰다.

남조선괴뢰선박들의 우리측 령해침범행위는 이날 하루에만도 무려 5차에 달하며 침범깊이는 1.1㎞에 이르고있다.

엄중한것은 괴뢰들의 우리측 령해침범행위가 미제의 로골적인 비호와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감행되고있는것이다.

미제침략군놈들은 2월 22일 새벽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확성기를 들고나와 연평도주변수역에서 그 무슨 《인공어초》설치작업을 진행한다는 해괴한 《통보》놀음을 벌려놓은데 이어 수많은 불한당들을 우리측 수역에로 내몰았다.

지어 그 무슨 《작업감시와 안전보장》이라는 구실밑에 한갖 유령에 불과한 《유엔군》의 기발을 띤운 함선들까지 이곳 수역에 투입하였다.

상전의 입김에 광기가 뻗친 괴뢰군부깡패들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억지주장》이라느니, 《위협을 가한다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것》이라느니 하는 악담들을 제쳐대면서 사태를 인위적으로 악화시키고있다.

이번 사태는 《안보불안》과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사상초유의 위기에 빠진 남조선의 현 사태를 수습해보려는 괴뢰들의 계획적인 군사적도발임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군대는 이미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조선서해해상에서 무모한 군사적도발에 광분하는 침략자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길것이라는것을 경고한 상태에 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세력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모한 군사적도발에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민족의 자랑 — 조선옷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적전통을 옳게 계승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을 살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세상에는 제나름의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자랑하는 옷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누구나 조선옷을 즐겨입고 제일 사랑한다.

우리 녀성들의 생활속에 친근하고 정답게 자리잡고있는 조선옷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면모를 더 잘 알기 위해 우리는 며칠전 조선옷전문가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기자: 요즘 조선옷에 대한 우리 녀성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있지 않는가.

중구역종합양복점 보통문조선옷점 책임자 조정순: 그렇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면서도 많은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1년내내 조선옷주문이 떨어질사이가 없다. 정말 조선옷을 전문한 긍지가 가슴에 넘친다.

기자: 조선옷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향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그에 대해서 들었으면 한다.

식료일용공업성 책임부원 심준찬: 옳은 말이다. 우리 조선옷을 본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그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특히 조선옷고름은 동방의 신비라고까지 불리울 정도로 외국인들속에서 반향이 크다.

예로부터 깨끗하고 소박하면서도 은근한 아름다움을 사랑한 우리 선조들은 그 형태와 색과 무늬에서 고상하고 우아한 조선옷을 즐겨입었다.

우리 조선옷의 특징은 독특한 비례로 이루어진것, 옷의 선들이 부드러운것, 률동성을 가지고있는것이다.

평양미술종합대학 공훈예술가 교수 박사 리유미: 조선옷의 독특한 비례라고 할 때 그것은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의 비례를 말한다. 그것은 극적대비를 이루고있다고 할 정도로 비례차이가 크다. 비례차이가 그렇게 큰데도 불안한 느낌을 조금도 주지 않고 오히려 독특한 형태적특징을 나타내는 여기에 우리 조선옷의 매력이 있다.

기자: 듣고보니 정말 그렇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인가.

리유미: 그것은 짧은 저고리때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비모양의 매듭이 되게 매는것을 관례로 삼았고 깃에 흰천으로 동정을 만들어 대는것을 관습으로 여겼다.

동정은 조선사람을 뜻하는것으로서 우리 조선옷에만 고유한 형식이라고 한다.

조정순: 조선옷의 특징은 또한 그 색과 무늬에서도 나타난다. 외유내강한 조선녀성들은 예로부터 진한 바탕에 윤긋윤긋한 무늬를 놓은 옷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색채에 대한 민족적인 미감이 아닌가싶다.

우리 조선옷점을 찾아오는 손님들만 봐도 색은 옥색, 초록색, 분홍색 등 은근하면서도 밝은 연한 색 또는 중간색으로 선택하고 무늬는 온순함과 소박한것을 엿볼수 있게 하는 진달래, 철쭉, 장미 등 여러가지 꽃무늬들과 자연무늬를 자그마하게 새겨줄것을 요구한다.

기자: 조선옷의 아름다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였다. 일상옷과 명절옷, 결혼식옷에 대해 설명을 더 듣고싶다.

리유미: 결혼식때 입는 옷이라고 하여 색대함이 조잡하고 큰 무늬를 새기는것은 우리의 고유한 미가 아니다. 더구나 치마폭을 멋없이 넓게 장식하는것은 고상하고 소박한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지 않는것이다. 부드럽고 우아한 단색을 위주로 하여 작은 무늬를 새기면서도 무늬량을 적게 새기고 신발이 보일락말락하게 드리운 치마를 받쳐입은 신부라야 조선녀성의 모습을 지녔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일상옷인 경우에는 치마길이가 행동하기에 편리하게 약간 짧은것이 특징이다.

명절옷도 연한 색의 고상한 감, 따뜻한감을 주게 해입어야 조선옷의 민족적특성이 더 살아난다.

심준찬: 주체92(2003)년부터 시작된 전국조선옷전시회에서도 민족성을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기울인 사색과 노력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고있다.

그러다보니 조선옷을 만드는데서 민족성을 옳게 살리기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있으며 성과도 크다.

기자: 조선옷은 진정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긍지이라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조선옷은 그 고유한 형태로 해서 기발이 없이도 국적을 알아볼수 있는 자랑스러운 옷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조선민족의 한성원임을 뗏뗏이 자부할수 있고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문명한 민족임을 가슴뿌듯이 새겨안을수 있게 하는 우리의 조선옷이야말로 대를 이어 빛내여가야 할 민족의 귀중한 재부가 아닌가.

앞으로 우리의 새 세대들과 녀성들이 조선옷의 민족적특성이 살아나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조선옷을 차려입도록 하는데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본사기자 오은별

온 나라가 친부모가 되여 원아들을 돌봐주는 우리 사회의 기풍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리워 이 땅우에는 얼마나 많은 창조물들이 전설처럼 솟아올랐는가.

얼마전에는 조국강산에 높이 울려퍼지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와 더불어 평양초등학원이 세상이 보란듯이 훌륭히 일떠섰다.

잠적도 새로운 지난 2월 1일 원아들의 보금자리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교육중시정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인 평양초등학원을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설했는데 조금도 흠잡을데가 없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온 나라가 원아들을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기풍, 사회주의조선의 가풍으로 되였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사회의 기풍, 사회주의조선의 가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남기신 그날의 후대사랑의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는 평양초등학원을 일떠세운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위훈을 다시 더듬어본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여 더 높이 울려가라

평양초등학원을 훌륭히 일떠세운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평양초등학원 구내에 들어서면 제일먼저 한눈에 안겨드는 구호가 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기숙사건물의 이 구호는 평양초등학원완공을 앞두고 최후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던 지난해 12월초에 새긴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유명한 구호는 공사초기에 이미 건설자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리였다.

지난해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평양중등학원을 돌아보시면서 평양시에서 중등학원을 먼저 건설하였는데 초등학원개건공사도 와닥닥 달라붙어 끝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 우리는 이 땅우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높이 울려가는데 바로 삶의 영예도 보람도 있음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양시건설사단 부참모장 조헌철동무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에 기어이 충정으로 보답하자.

평양초등학원을 아이들의 궁전으로 하루빨리 완공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리자.

평양중등학원을 훌륭히 일떠세워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건설자들의 가슴가슴은 이런 신념으로 용암처럼 끓어번졌다.

그들은 평양초등학원개건공사를 200일전투기간에 끝낼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중등학원건설에서 경험을 쌓은 일군들로 강력한 개건공사지휘부가 꾸려졌고 모든 대상공사를 위한 조직사업이 치밀하게 진행되였다.

전투장마다에서 돌격대원들이 철야전투를 벌리고있을 때 력포구역, 선교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공사장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였다.

교사와 기숙사만장에 대한 콩크리트치기전투를 벌릴 때였다. 단 며칠동안에 와닥닥 끝내야 할 엄청난 작업량을 놓고 지휘부에서는 려단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경쟁에 참가하게 된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하나같이 마대들을 불러메고 달려왔다. 비좁은 층층계단을 따라 수백명의 청년들이 와—와— 소리치며 흔석과 세멘트마대들을 메고 달리는 그속에서는 누가 지휘관이고 누가 대원인지 가려볼수 없었다. 그것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 한치한치 청년영웅도로를 열어간 청년들의 불굴의 모습그대로였고 10여년 세월 백두의 혹한속에서도 신념의 언제를 높이 쌓아간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영웅적군상그대로였다. 그 시각 그들의 가슴속에 고패친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였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아이들의 밝고밝은 모습을 보실 때마다 온갖 피로가 다 풀리시는듯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생각이 의지의 기둥이 되여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공사지휘부에 보고되는 전투일보들에는 련일 놀라운 수자들이 기록되였다.

외부공사를 맡은 전투원들이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전투의 하루하루를 빛나게 장식해나가고있을 때 모든 전투장들에서는 새로운 건설방법이 련이어 창조되고있었다.

낡은 구조물을 철거하는 동시에 한쪽에서는 기초굴착에 들어가고 그런가하면 또 콩크리트치기와 조립 등 여러가지 작업이 여러곳에서 동시에 벌어졌다. 그야말로 립체전이였다. 그것은 당의 요구라면 산악도 통째로 떠옮기고 바다도 단숨에 메워나갈 억세 기상으로 떨쳐나선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신념의 반영이였으며 류례없는 건설속도가 창조될수 있게 한 비결의 하나였다.

지금도 학원의 교직원들은 개건전투의 나날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대원들을 보살펴주고 앞장에서 돌과구를 열어제끼던 현장지휘부 일군들인 김명현, 박남동무들과 원아들이 마음껏 체력을 단련하게 될 운동장의 인공잔디와 고무깔판, 체육기재들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던 평양시송배전부 일군들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다그쳐지던 지난해 9월 어느날이였다. 뜻밖에도 건설에 동원된 일군들로 참관이 조직되였다. 그날 시탕책임일군이 직접 찍어준 참관지들은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최근에 경애하는 원수님께 큰 기쁨을 드린 단위들이였다.

그 단위들을 돌아보는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평양초등학원을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모든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그윽히 갖추어진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워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불같은 일념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쳤다.

바닥라일들에 티끌만 한 흠도 생길세라 어려개의 투광등까지 설치해놓고 작업을 진행한 대동강구역려단 돌격대원들에게 한 이야기며 어느 한 미장면에 생긴 자그마한 편차를 놓고 스스로 처벌을 요구해나선 대대 시공참모 최명희동무에 대한 이야기, 먼길을 달려가 수십개의 기공구를 마련해가지고 온 황인규동무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에 생겨난 일화들이다.

력포구역종합식당 지배인 김경희동무와 종업원들에게도 개건공사의 나날에 간직된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다.

한 종업원이 집단의 투쟁이야기를 남기고싶어 스스로 쓰기 시작했다는, 지금도 종업원들이 《우리 전투기록장》이라고 부르는 기록장에 초등학원개건공사의 나날에 꽃피운 전투담이 생동하게 기록되여있다.

그가운데는 이런 몇토막도 있다.

《…인원은 고작해서 20명, 그것도 대부분이 녀성들이다. 해결해야 할 방대한 량의 건설자재도 자재이지만 넓은 면적의 개건공사를 그 인원으로 어떻게 할가. 종업원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지배인이 미장칼을 들고 나섰다. 그뒤를 조두현, 리창림동무들이 따라섰다. 과연 우리들의 힘으로 해낼수 있을가?》

《오늘도 구역당책임일군이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공사장을 찾아왔다. 정말 수고가 많다고 하는 그에게 지배인은 생각깊은 어조로 우리야 어머니들이 아닌가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 갑자기 눈굽이 달아올랐다. 원아들을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아닌가.》

《며칠간의 철야전투끝에 백수십㎡에 달하는 천정공사가 마무리되고 련이어 미장도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다.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바쁜 속에서도 력량을 뚝 떼준 구역돌격대의 일군들이 정말 고맙다. 새벽 1시경 손수레가 도착하였다. 거기에 불통들을 싣고 이동하니 건조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하지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방도가 생기는 법이다.》

《…세대주들이 작업장을 찾아왔다.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그들은 오늘부터 매일 몇시간씩 공사장에서 일손을 돕겠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만류하였지만 그들은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의 심금을 울린것이다.》

《륙 20일째만이다. 우리는 드디어 자체의 힘으로 시사실내부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요소요소 아직도 할 일은 많다. 그러나 모두가 신심에 넘쳐있다. 우리의 창조물은 마치 이렇게 속삭여주는것만 같다. 자기 힘을 믿으라.》

그로부터 얼마후 평양초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의 식사실을 돌아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

우리는 여기에 초등학원개건공사를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친 수많은 위훈자들의 전투과정을 일일이 다 적지 못한다. 그러나 선교구역 룡곡고급중학교와 정천구역 미래소학교의 일군들에 대하여서는 꼭 이야기하고싶다.

공사장에서 개건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질 때 그들도 건설자들과 한전호에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화적이면서도 직관성과 과학성, 생동성이 보장된 여러가지 그림 등을 붙여놓았는데 모든 공간이 지식홀, 상식홀로 되였다고 하신 복도의 코고작은 수많은 그림들에는 그들의 남모르는 노력과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있다.

원아들의 보금자리를 우리 학교보다 더 멋있고 더 훌륭하게!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원아들이 새 집에 든지도 수십일, 하지만 학원을 찾아 묵묵히 전정을 바쳐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지고있다.

부모없는 원아들이 믿고 의지할것은 우리 당밖에 없는것만큼 평양초등학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원아들이 설음을 모르고 한점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씩씩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외우는 선교구역 룡곡고급중학교 교장 김연화동무의 말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지향을 읽을수 있다.

지금 펏쟁이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초등학원에서는 원아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리고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귀중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원아들은 한생토록 기억하리라.

학원개건공사를 친히 발기하시고 형성안까지 지도해주시였으며 자기들을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을.

위대한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친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육친의 뜨거운 정을.

후대들을 위하여,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지혜와 열정을 쏟고 다 바친 감동적인 화폭들, 바로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일

우리 당의 고마운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새겨주고있다.
—평양초등학원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 정히 받들어

성천강구역 금사동 리금복동무의 가정에서

얼마전 함흥중등학원으로 향하는 한 녀인이 있었다. 성천강구역 금사동에서 사는 리금복동무였다. 가정에서 마련한 생활필수품을 안고 원아들을 찾아가는 길이였다.

이날 준비해온 물자를 원아들에게 안겨준 리금복동무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듯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며 원아들을 찾는 리금복동무의 발걸음에 과연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리금복동무가 친어머니된 심정으로 중등학원원아들을 찾기 시작한것은 3년전부터였다. 그해 5월, 리금복동무의 가정에 경사가 났다.

맏아들 정광이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된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녔것이다.

그날 정광이는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 때로부터 며칠후 첫기 야영에 참가하기 위해 또다시 야영소로 떠나는 커다란 행복도 누리게 되였다.

크나큰 격정속에 맏이를 바래우고 돌아오는 리금복동무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직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안고 성천강구역봉원관리소 로동자로 성실하게 일해오고있는 리금복동무이지만 갈수록 커가는 가정의 행복에 비추어보니 나라에 얼마나 큰 보탬을 주었던가 하는 량심의 물음에 머리가 숙여졌다.

그날 저녁 안해의 심정을 읽은 남편 리광동무가 이렇게 말했다.

《어보, 우리 인츰 중등학원 원아들을 찾아가는것이 어떻겠소? 준비를 잘해가지고 말이요. …》

리금복동무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뙤근길에 중등학원에 들려왔다고, 당의 은정속에 부러운것 없이 생활하는 원아들을 보니 생각되는것이 많았다고, 친부모된 심정을 안고 그들을 잘 돌봐주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자고 뜨겁게 말하는 남편이 더없이 고마와서였다.

이들부부는 성의를 다하여 학용품과 생활필수품들을 하나하나 마련해놓았다. 이렇게 준비한 물자를 안고 리금복동무의 부부는 곧 중등학원을 찾아갔다.

학원당조직과의 합의속에 스스로 한개 학급을 맡은 그들은 원아들에게 물자를 안겨주고 이야기꽃도 피우면서 사랑과 정을 기울이였다.

이렇게 시작된 리금복동무의 발걸음이였다.

날이 갈수록 그 걸음은 잦아졌다.

밝고 명랑하게 자라라고 원아들에게 부파 하모니카, 기타를 비롯한 악기들도 안겨주었으며 생기와 활력을 잃지 말라고 축구공, 배구공을 비롯한 운동기재들도 마련해주었다.

지난해 가을에는 새로 자전하여 맡은 학급의 원아들이 공연을 할 때 입으라고 새옷도 입식으로 갖추어주었다.

명절날과 기념일 그리고 휴식일을 비롯하여 때없이 찾아가 얼굴에 그늘진 아이는 없는가, 앓는 아이는 없는가 알아보며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고있다.

우리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활짝 펼치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줄 아는 리금복동무와 같은 인간들이 많기에 따사로운 당의 품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라고 목메여 부르는 원아들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이니라.

본사기자

혈육이면 이보다 더하랴

로인부부의 부탁

순천시 새마을동 43인민반에서 사는 김히수, 김춘애 로인부부의 집뜨락에는 해마다 병아리들이 꽉 들어차군 한다.

그것이 인생의 늘도 없는 락이런듯 수년세월 병아리를 키우는데 온갖 품을 아낌없이 들여가는 로인부부, 그들의 가슴속에는 이런 사연이 깃들어있다.

3년전 5월 어느날 대성산종합병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실은 당보의 지면앞에서 로인내외는 눈굽을 적시지 않을수 없었다.

병원에서 보양을 받고있는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몸소 몸무게관찰표를 주의깊게 보시며 아이들의 몸상태가 나이에 맞게 정상상태에 이르렀다고, 3개월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그럴수록 마음을 놓지 말고 더 잘 돌봐주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를 새길수록 로인부부의 마음은 뭉클이 안은듯 뜨거워났다.

그때부터 로인내외가 사는 집뜨락에는 날마다 병아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땔감사이 어렸을 때 몸보신에 쓰려고 햇닭을 잡아 해주군 하던 곰을 원아들에게 다 해먹이고싶었던것이다.

그것을 맞나게 불고 더 씩씩하게 자랄 원아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온갖 지성을 다 바치자던 나날 로인부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커다란 영광을 받아안게 되였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정깊은 감사를 김춘애로인에게 보내주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원아들과 나는 친혈육의 정을 이어왔던가.)

그렇게 되여 그의 걸음은 육친의 정으로 더욱 뜨겁게 이어지게 되였다. 도에 육아원과 애육원, 중등학원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누구보다 열정을 바쳐온 마봉철동무였다.

안해 최용숙녀성도 병으로 불편한 몸이였지만 원아들에게 학용품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적극 도와나섰다.

그 나날에 소장할아버지라고 부르던 원아들이 어느덧 우리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게 되였고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게 되였던것이다.

애육원의 불밝은 창가를 바라보는 마봉철동무의 귀전에는 원아들이 속삭이던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우리 할아버지, 그것은 모두가 한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만 스스로 없이 울려나올수 있는 부름이였다.

본사기자 신현규

원아들의 귀속말

광명성절을 앞둔 날 저녁 함경북도애육원을 나서는 도검찰소장 마봉철동무의 귀전에는 저지마다 달려와 품에 안기며 속삭이던 원아들의 목소리가 떠날줄 몰랐다.

《할아버지, 오늘은 내가 빨간 별을 탔어요.》

《난 셈세기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빨간 별을 타지 못했어요.》…

스스럼없이 속마음까지 터놓던 아이들, 이제는 친손자, 친손녀처럼 정이 든 그들의 모습을 그려볼수록 원아들과 정을 맺어온 나날들이 추억깊이 되새겨졌다.

세해전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평양애육원을 찾으시여 품속을 파고드는 원아들의 볼도 어루만져주시며 다심한 어버이의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그는 가슴속 격정을 누를 길 없었다.

사실 여러해전부터 원아들의 생활에 관심을 돌려온 그였다.

하지만 그 시각 마봉철동무는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원아들과 나는 친혈육의 정을 이어왔던가.)

그렇게 되여 그의 걸음은 육친의 정으로 더욱 뜨겁게 이어지게 되였다. 도에 육아원과 애육원, 중등학원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누구보다 열정을 바쳐온 마봉철동무였다.

안해 최용숙녀성도 병으로 불편한 몸이였지만 원아들에게 학용품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적극 도와나섰다.

그 나날에 소장할아버지라고 부르던 원아들이 어느덧 우리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게 되였고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게 되였던것이다.

애육원의 불밝은 창가를 바라보는 마봉철동무의 귀전에는 원아들이 속삭이던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우리 할아버지, 그것은 모두가 한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만 스스럼없이 울려나올수 있는 부름이였다.

본사기자 신현규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꾸밈없는 얼굴은 해당 사회제도의 실상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이며 축도이다.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놀이터와 같은 생활장소도 해당 사회제도를 비추어주는 거울, 그 사회의 축도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여기에 며칠전 지방출장길에서 만나보았던 평범한 공원관리원의 소박한 이야기가 있다.

《아동공원일이 이렇게 바쁜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보시다싶이 오늘도 보통날인데 꼬마손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동공원은 늘 이렇게 명절처럼 흥성인답니다.》

늘 명절처럼 흥성이는 아동공원,

그의 말을 되새기느라니 아동공원, 유희장, 물놀이장, 로라스케트장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도록 훌륭한 조건을 갖춘 생활장소들이 평양시에만도 수백개, 전국적으로는 수천개에 달한다고 이야기하면 도시경영부문 일군의 목소리도 더듬어진다.

정녕 또 하나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락아소와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배움터들은 물론이고 거리와 마을, 일터와 백화점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랑랑히 울려나오고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며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경륜을 끝없이 펼쳐가는 어머니당,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하지만 이 땅과 한지맥으로 잇닿은 남조선의 아이들은 어떠한가.

얼마전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리였었다.

《…서울시 영등포구 중앙어린이공원에 가보니 미끄럼대와 목마 3개가 설치된 이곳에서 뛰여노는 어린이는 한명도 없었다.

공원 곳곳에는 빈 술병과 담배꽁초가 지저분하게 널려져있고 놀이시설에는 어지러운 락서가 가득했다.

공원의 나무그늘밑에서는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방랑자들이 모여앉아 착자지껄 술판을 벌려놓고있었다.

공원 한쪽에 경찰서전화번호가 적혀있었지만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는 음성이 울려나왔다.

이 공원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5살 난 아들을 보낸다는 중년녀성은 〈말이 어린이공원이지 사실상 술을 마시려는 방랑자들을 위한 공원이다. 아이가 가끔 이 공원에서 놀 때마다 불안하다. 어른들도 무서워 피해다닌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였다.

하루종일 어린이는 보이지 않고 대신 낮에는 방랑자들이 공원위생실에서 빨래를 하고 저녁이 되면 공원의자에 앉아 화술을 마신다.

한 주민은 〈이런 스산한 곳에 누가 아이를 보내겠는가. 이 공원이 어린이공원인지도 모르는 주민이 태반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생활공간이 방랑자, 취객들에게 〈점령〉당하여 위험한 장소로 되고있으며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지난해말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시안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에 대한 안전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공원의 45%가 안전하지 못한것으로 평가되였다.

지난해에 이런 위험한 어린이공원들에서 살인, 강도, 폭행 등 폭력범죄가 5건이상, 경찰신고건수가 16건이상 발생하였다.》

이렇듯 어린이들의 공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커녕 온갖 사회악이 곰팡이마냥 자라고 범죄의 비명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남조선사회, 이런 암담한 사회에서 어떻게 부모들이 마음놓고 자식들을 키울수 있으며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미래에 대해 상상조차 할수 있겠는가.

어린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넘쳐나는 아동공원과 온갖 범죄가 제질러지는 아이들이 없는 어린이공원,

참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하늘과 땅같은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는 관이한 실상을 절감할수록 이 땅에 날마다 일떠서는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들을 더욱 뜨겁게 안아보는 우리 인민이다.

바로 얼마전에도 부모잃은 아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훌륭히 꾸려진 평양초등학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다정히 안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인민은 그 얼마나 눈시울 뜨거이 우러러뵈였던가.

평양초등학원을 돌아보니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갔다 나온것만 같다고, 원아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며 이곳에서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행복의 메아리로 끝없이 울려퍼지도록 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사회주의 내 나라는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거연히 솟아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장정철

범죄의 란무장

무해전 12월 남조선에서 백주에 로인을 랍치하여 한적한 농촌으로 끌고가 죽인 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그러면 이 로인이 어떻게 되여 백주에 살해당했는가 하는것이다. 고령의 로인을 살해하게 한 장본인은 70살 나는 그의 안해였다고 한다. 그는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돈으로 살인업자들을 고용하여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했던것이다.

2014년에도 경기도 용인시의 어느 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정체모를 3명의 괴한의 칼에 찔려 즉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살인도 역시 그의 안해의 청탁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였다고 한다.

현재 남조선의 인터네트에는 살인청부업자들이 삐젓이 자기들의 전적을 광고하는 글들이 실려고있다.

사회를 더욱 경악케 하는것은 사람들이 이런 살인청부업체들이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그것은 살인청부업체들이 범죄를 막아야 할 사법검찰, 경찰에까지 손을 뻗치고있어 신고자는 귀신도 모르게 목이 달아나기때문이다.

남조선사회가 이런 범죄의 란무장이니 살인주문은 날이 갈수록 성행하고 살인업자들은 《주문봉사》를 더욱 과렴치하게 광고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아동공원에 비낀 판이한 두 모습

미제원쑤놈들의 야수적만행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위원군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신종혁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75돐경축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연구토론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75돐경축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연구토론회 《기적의 2016년에서 더 큰 승리의 2017년에로》가 18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김성훈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선전문화국장, 리영수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사협) 회장을 비롯한 협회회원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조선대학교 교원, 학생들, 간또지방의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 첫해의 성과와 올해의 전망에 대하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의 변화와 대미전략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과학기술강국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공화국에서 당 제7차대회를 커다란 로력적성과로 뜻깊게 맞이한 총정의 70일전투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력사적인 70일전투와 200일전투를 통하여 자력자강의 위력이 높이 발양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설계도따라 빛나게 관철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국인민들은 올해에 새로운 시대정신인 강원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분수령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침략전쟁도발책동이 감행되는 속에서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막강한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시대착오적인 《전략적인내》정책과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매달려온 미국과 괴뢰패당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자기 본토에 대한 공화국의 공격능력이 현실적으로 높아가고 있는데서 미국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공화국이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에 충실할것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국제적영향력을 더욱 높이고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역의 전사, 제자들이 대를 두고 전해가는 사랑의 전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총련을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총정의 모범,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 키우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의 수호자이십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가장 숭고하고 헌신적이며 가장 따사롭고 열렬하며 가장 폭넓고 웅심깊으며 가장 자애롭고 다심한 태양의 사랑이였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으로 불타는 뜻깊은 2월 우리는 이역의 전사들의 심장속에 뜨겁게 새겨져있는 못잊을 추억의 페지들을 펼쳐 절세위인의 한없이 순결하고 열렬한 동지애를 전하려 한다.

스스로 짊어지신 사업부담

화창한 봄빛이 무르녹던 주체80(1991)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을 찾아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만사를 젖혀놓으시고 만나주고계신다고, 하지만 고령의 우리 수령님께서 계속 그렇게 일하시게 할수야 없지 않는가고 안타까운 어조로 되이시였다.

순간 일군들이 받아안은 충격은 컸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재일동포들을 조국으로 불러주시고 방문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조국을 떠나는 동포들인데 아무리 바빠도 꼭 만나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미나면 현지지도의 길에서 서둘러 돌아오시던 우리 수령님, 누구나 그 따사로운 인덕에 목메이군 하였지만 수령님의 로고에 대해 생각해본 사람이 과연 있었던가.

자책감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연하신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그 공간을 이제는 내가 메꾸자고 합니다. 총련일군들이 앞으로 조국을 방문하면 내가 그들을 만나주겠습니다.》

자신의 과중한 사업부담은 아무렇지도 않으신듯 총련과 재일동포사업이라는 짐을 두어째에 또다시 걸머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이 격정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장군님께서는 얼마전 조국을 방문하였던 총련의 책임일군을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를 만나 밥이라도 한끼 대접해 보냈으면 좋았을걸 그랬다고 몹시 아쉬워하시는것이였다.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이렇게 마음속격정을 터뜨렸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여러분, 들으시는가. 우리 수령님과 꼭같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신들모두를 한품에 안아주고 계신다. 대를 이어 누리는 이 위인복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

그때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수많은 대표단들을 만나주시였다.

만나주실 때마다 언제나 한가정의 단란한 분위기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이역의 아들딸들은 친아버지에게 응석부리듯 스스럼없이 안겨들며 저마다의 자랑거리도, 가슴속에 품고있던 시름과 걱정거리도 숨김없이 아뢰군 하였다.

다심하신 어버이의 정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일군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옛날부터 우리 조선사람들은 본가집에 갈 때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갔다고 하시면서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이 조국에 오는것은 말하자면 본가집에 오는것과 같다고, 다음번에는 꼭 부인들을 데리고오라고 이르시였다.

총련일군들은 감격에 목이 메여하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이의 당부를 지켜드릴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몹시 바쁘신 장군님을 동부인까지 하고와서 뵈온다면 그만큼 그이의 시간을 더 지체시키게 될것이라는것이 그들의 속생각이였다. 그런데 제딴에는 잘하느라고 한 이 처사가 도리여 어버이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릴줄 어이 알았으랴.

이듬해 2월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이 동부인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오게 된 사연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섭섭해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동지들뿐아니라 부인들의 운명까지도 다 책임지고있다고, 그렇기때문에 부인들을 데리고오는것이 인사이고 성의로 된다고, 앞으로 총련대표단이 조국에 올 때에는 부인들을 데리고오는것을 제도화해야 하겠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처자들의 운명까지도 맡아주시려는 그이의 웅심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총련일군들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다음번에는 안해들을 꼭 데리고오겠다는 그들의 격정넘친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다소 마음이 개운하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정깊은 눈길로 좌중을 둘러보시는 우리 장군님의 안광에도, 감격에 겨워 그이를 우러르는 총련일군들의 얼굴에도 따뜻한 봄빛이 흘러넘치였다.

참으로 친어버이와 자식간의 뜨거운 정이 흐르는 감격적인 순간이였다.

그때로부터 두달후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한 대표단성원들은 전원이 안해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께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장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앞당겨진 대회

언제인가 교육일군들의 대회가 예정보다 앞당겨 열린적이 있다. 그 사연에도 이역의 아들딸들을 두고 늘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어버이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당시 조국을 방문하였던 총련교육일군대표단이 대회가 열리기전에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이역에서 수고하는 총련의 교육일군들이 조국에 왔다가 대회를 며칠 앞두고 떠나게 된다니 지금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의 대회에 그들을 참가시켜야 하겠는데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안타까운 물으심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일군들의 가슴은 바질바질 타들었다. 총련대표단의 조국체류기일을 연장하는것이 어려운 문제였기때문이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문기일을 연장하는것이 어려우면 대회날자를 앞당기자고, 우리가 좀 수고를 하더라도 총련교육일군들이 대회에 참가하여 수령님의 가르치심도 직접 받게 하고 조국의 교육일군들의 우수한 경험도 들게 하여주자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대회는 예정보다 앞당겨 열리게 되였고 출발을 앞두고 남몰래 속태우던 총련의 교육일군들은 꿈같은 행운을 누리게 되였다.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역의 전사, 제자들만이 누릴수 있는 특전중의 특전이였다.

사랑의 활력소

일본을 방문하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출발을 앞두고있던 주체75(1986)년 5월 어느날이였다. 예술단의 출발준비정형과 총련의 실태를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총련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에 헌신적인 몇몇 동포들이 심하게 앓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이역의 차디찬 하늘아래서 병고에 시달리고있을 그들을 아픈 마음으로 그려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가지고 가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일본에 가면 병문안을 할 계획은 있었지만 무엇을 준비해가지고 갈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역땅에서 사는 동포들은 어느때도 그렇겠지만 몸에 병이 나서 앓을 때에는 조국이 더 그리울텐데 조국에서 가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면 되겠는가고 가볍게 나무라시며 그들에게 산삼과 록용을 보내주어 건강을 빨리 추세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뜻밖에도 침상에서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사랑의 보약재를 받아안은 동포들은 눈물로 이별길을 적시였다.

《저희들이 뭐라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지도자동지의 하늘같은 이 은혜를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보약재, 정녕 그것은 이역의 아들딸들을 위하시는 어버이의 뜨거운 정이 어려있는 사랑의 활력소였다.

본사기자 허 영 민

조일교육토론회 및 조일교육교류모임

도꾜에서 진행

제18차 조일교육토론회 및 제43차 조일교육교류모임이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일본교직원조합, 일조학술교육교류협회, 일조교육토론회 현지실행위원회의 공동주최로 11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에서 진행되였다.

조선학교관계자들과 일본 전지역의 교육관계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이 학교교원들과 함께 15명의 일본학교교원들도 중급부와 고급부에서 수업을 하며 관계를 두터이 하였다.

조일교육교류의 력사를 주제로 한 제18차 조일교육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고문과 일본교직원조합 이전 부위원장 등이 재일동포들과 량심적인 일본사람들이 단합된 힘으로 총련의 민족교육을 사수하고 이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바라키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 대표, 민족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네트워크히로시마, 후꾸오까현 일조우호협회 성원들이 일본 각지에서 벌어지고있는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한 활동정형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재일외국인의 민족교육권보장을 위한 운동을 강화해나갈데 대한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참가자들은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출연하는 예술공연을 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시비하지 말라

얼마전 이란의 파르스통신이 《미국의 이중기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핵무기를 철폐할 의지가 없다》라는 제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난해 영국의 핵잠수함란도미싸일이 오동작으로 미국령해에 떨어졌는데 미국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있다는것, 만일 로씨야의 란도미싸일이 미국령해에 떨어졌더라면 미국은 반드시 로씨야에 최후의 대결전을 선언하였을것이라는것, 저들의 동맹국들이 핵무기개발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있는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핵개발과 미싸일발사는 위법으로 몰아대며 가혹한 압력과 제재를 들이대고있다는것이다.

론평이 시사해주는바는 아주 크다. 그것은 《핵의 평화적리용》, 《핵군축》, 《핵무기전파방지》를 떠들며 제관관행세를 하는 미국이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달리하고있다는것이며 핵보유국들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이다.

결코 무근거한 주장이 아니다. 실지 미국의 행동과 핵보유국들의 객관적인 실태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에 대하여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6월 미국의 플로리다주 앞바다에서 영국이 핵잠수함란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1만 2 000km의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란도미싸일 《트라이던트-2》는 고장으로 얼마 날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 떨어졌다. 문제는 이 미싸일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보다 1 000배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핵탄두를 탑재하게 되여있다는것이다. 만일 이 미싸일에 실지 핵탄두가 탑재되여 폭발하였다면 미국이 어떤 무시무시한 참화를 입었을것인가에 대해서는 가히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도 그 후과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자국민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영국에 엄중히 항의를 하고 크게 문제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상상을 초월한다. 코앞에 대륙간란도미싸일이 떨어졌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수염을 떼 내리쓸고 사실여부에 대하여 일체 공개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영국에 그것을 비밀에 붙여줄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나라들이 단거리미싸일을 한두발씀 발사해도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며 무슨 큰 변이나 난것처럼 북탁소동을 피우던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동이다.

하지만 별로 새삼스러운것은 아니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엇서는 나라들은 단거리든 장거리든 미싸일을 발사하면 안되지만 저들과 사이좋은 나라들은 핵시험을 하고 대륙간란도미싸일을 발사해도 무방하다는 편견적인 태도로부터 출발한것이기때문이다. 력대로 미국은 그렇게 행동하여왔으며 이제는 그것이 고질화되였다. 오죽하면 서방언론들까지도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가가 문제라는것이 미국식론리이며 이중기준이라고 개탄하였겠는가. 이런것을 놓고볼 때 로씨야의 란도미싸일이 미국령해에 떨어졌다면 미국이 최후의 대결전을 선언하였을것이라고 한것은 지나친 억측이 아니다. 십분 가능하다.

로씨야는 미국이 잠재적적수로 여기고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고립약화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동쪽에로의 나토의 확대를 통해 로씨야를 압박하고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여 이 나라의 핵보복능력을 무력화시키려 하고있다. 로씨야는 이에 핵타격능력을 보다 높이는것으로 맞서나가고있다. 얼마전에 대륙간란도미싸일 《또뽈-M》을 성과적으로 발사한 로씨야는 앞으로도 시험발사를 계속 진행하려 하고있다.

현실은 로씨야나 미국, 영국 등이 핵무기를 축감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도리여 그 능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다른 핵보유국들도 핵무기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절대적인 수단으로 보고 핵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핵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륙간란도미싸일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미싸일들을 련이어 발사하고있다. 이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우리 공화국도 례외로 될수 없다. 더우기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인 미국과 교전관계에 있고 항시적인 핵위협을 받고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핵무력강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우리의 핵무력강화조치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을 걸고들며 허튼 나발을 계속 불어대고있다.

우리가 대륙간란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선언한것을 《도발》로 오도하며 우리를 위협의 가해자로 몰아대고있다. 최근에는 일본과 남조선괴뢰들까지 동원하여 우리의 로케트를 요격하는 흔련까지 벌리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는 고의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그들의 속심은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평화파괴자라는 감투를 씌워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강행과 우리 주변나라들을 노린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합리화하고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자는것이다. 하지만 그따위 수법은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서 절대로 통할수 없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파괴자로서의 미국의 날강도적인 정체는 이미 낱낱이 드러났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할것을 외치는 미국때문에 항시적으로 전쟁의 검은구름이 떠돌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우리의 로케트발사는 철두철미 합법적이다. 핵시험과 미싸일시험발사를 비법으로 규정한것은 유엔헌장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그 어떠한 구속도 받을것이 없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아무때나 미싸일을 발사해도 문제시될것이 없고 우리가 자위를 위해 진행하는 시험은 위법으로 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을 시비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미국이든 그 하내비든 우리를 시비하며 압력을 가하려든다면 우리는 부득불 더 강한 물리적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응당한 자주적권리이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행사해나갈것이다.

리 학 남

날로 치렬해지는 북극쟁탈전

북극의 영구동토대가 급격히 녹아내리면서 방대한 매장자원의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북극에는 자원의 《저장고》로 불리우리만치 원유와 천연가스뿐아니라 금강석과 희토류, 금, 안티몬, 석 등 무진장한 자원이 매장되여있다. 북극을 장악하면 원유와 가스시장을 장악하게 될것이라는것이 분석가들의 일치한 평가이다. 북극에서의 원유와 천연가스채취가 많은 품이 들지만 여러 나라들에서 이 지역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더우기 남극과 달리 북극에는 륙지가 없고 령토주권에 관한 국제조약도 없는것으로 하여 나라들사이에 자원쟁탈전이 보다 격화되고있다.

북극이 랭전의 마당으로 되고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은 이미전부터 울려나왔다.

북극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은 단지 지하자원만이 아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최단거리로 잇는 북극항로도 여러 나라들이 북극에 눈독을 들이고있는 원인의 하나이다.

로씨야는 2007년에 제일먼저 북극해저에 로씨야국기를 꽂았다. 2008년에 북극에 관한 국가정책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2020년까지 북극을 로씨야의 주요한 전략적자원기지로 하며 북극방위를 위한 부대를 창설한다는것도 결정하였다.

로씨야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북극개발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카나다도 북극권에서의 자국의 리익을 사수하려는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여기에 군사훈련센터를 세웠다.

이밖에 미국과 노르웨이도 북극에서 자기 나라의 리익을 얻기 위한 군사활동을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2015년에 북극문제와 관련한 국제회의가 알라스카에서 진행되였다.

20개 나라들과 유럽동맹이 이 회의에 참가하였는데 그중에는 미국, 로씨야 등 8개 북극리사회 성원국들과 중국, 일본, 인디아 등 12개 비북극나라들이 포함되여있다.

미국은 기후변화의 간판을 크게 내걸고 북극지역문제와 자원개발에 대한 저들의 참여폭을 넓히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에는 명백한 전략적타산이 깔려있는데 그 목적은 로씨야 등 나라들과의 북극쟁탈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자는데 있다.

미국이 북극지역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원인은 결코 경제적리해관계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미국은 해군무력에 있어서 북극을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곳으로 보고있다.

서반구에서 동반구로 가는 가장 짧은 란도미싸일자리길이 북극지역을 통과한다. 그로하여 미국은 이 지역을 차지하고 로씨야령토의 많은 전략대상물들을 쉽게 타격하려 하고있다.

따라서 미국의 원자력잠수함들이 바렌쯔해에로 활발히 진출하고있다.

2014년에 미해군은 북극에서의 군사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북극로정도를 작성하였다. 특수기관들의 많은 전문가들이 북극에서의 미국의 전략적지위에 대해 연구하여왔다. 미국가정보국의 해당 기관들의 지도밑에 연구를 심화시키고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사이에 정상적인 정보교환을 진행할수 있는 특별전략협의회를 창설하였다.

한편 미국림지리정보국은 2017년까지 바다얼음이 풀리는 과정과 빙하경계선의 변화과정을 관측한다는 명목하에 3차원으로 된 북극지도를 완성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많은 나라 출판물들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북극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높여가는 로씨야를 제압하기 위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북극에서까지 주인행세를 하려는것이다. 2030년까지 북극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미군무력증강이 계획되고있다고 한다.

북극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이 보다 격화될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하고있다.

본사기자 라 명 성

남조선 전지역에서 거세차게 벌어지는 초불투쟁, 《박근혜를 즉각 탄핵하라》

ㄱ-71030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